하나님의 자기모순 극복 분투기

(이사야 63:1~19)

1.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3.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6.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기모순 극복 분투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모순 극복 분투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징계하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의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의 질문이고 하반절의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3절부터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제목의 의미는 자기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군분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모순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기모순을 극복하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계십니다.

20년 전에 어느 안수집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일찍 퇴사하시고 젊은 나이에 대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로 반도체 칩을 제작하는 첨단산업의 전자회사를 설립하셨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칩은 기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품질기준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칩은 전량 폐기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양이 막대해서 손실이 계속 생겼다고 합니다. 주문량에 비해서 불량률이 높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록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강을 지날 때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중 이란과 이크라의 전쟁이 나서 8년간이나 계속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칩이 미사일 헤드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주문이 폭주해서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까지 수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쌓였던 적자를 순식간에 해결하고 빚까지도 다 갚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폐기처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쓰레기 만두 사건 때에 만두가 전량 폐기처분되었습니다. 또 농약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농산물들도 전량 폐기처분됩니다. 또 구제역에 걸린 돼지나 소도 마찬가지고 기준치에 미달된 공업제품들도 폐기처분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기준도 없이 인간을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은 무엇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게 되었습니다. 불량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 불량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창세기 6장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5~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불량품 인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신 하나님은 폐기처분을 결정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불량품 인간을 전량 폐기처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기모순 극복 분투기'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21장에서도 간략히 예언되었고 3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에돔의 보스라 지역이 등장합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로써 유명한 포도 산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진멸하실 원수를 하필이면 에돔의 보스라로 상징한 것일까요? 에돔만이 지은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 왕국 유다와 가까운 에돔과의 대비를 통해 강조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 보스라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대립되는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시온은 선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와 대립되는 에돔의 보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참혹한 살육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의 이런 잔혹한 묘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결코 아닙니다.
포도 산지인 보스라에서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을 때에 포도즙이 옷에 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이렇게 진멸하시겠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를 밟는 사람들의 옷에 포도즙이 튀는 것처럼 에돔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옷에 그들의 피가 튄다니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사정없는 분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면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들여 키운 가축들이 구제역에 걸리면 폐기처분해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안수집사님의 이야기에서도 반도체는 조금의 불량만 있어도 분쇄기로 폐기처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간은 더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들끼리는 서로의 인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으로 취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폐기처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인간 기준은 무엇이고, 불량 인간은 어떻게 폐기처분되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온 보스라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의 산지인 보스라와 시온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안으로 들어가는 채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질 때에 기쁨과 만족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기쁨은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사랑하면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온전히 마음에 담을 수 없기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이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심이 서로를 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관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한 존재로써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는 마음 채움거리를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 마음에 배우자를 담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당연하고 합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배우자를 마음에 담지 누구를 담느냐고 반문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배우자를 담았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겨나는 사랑을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량품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로를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기쁨을 서로에게 표현하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서로를 담아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불량 남편이고 불량 아내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담겨야 할 자리에 자녀를 담았기 때문에 불량 부모가 됩니다. 불량은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장님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사업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사업을 담는 순간 불량 사장님이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사업에 표현하면 될 뿐입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아야 기쁘고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만족하려니 하나님께는 불량 사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런 불량품 인간들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시기에 죽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돔에 대한 진멸의 예언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스라의 포도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할 때에는 진멸되고 폐기처분되어야만 마땅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실제로 잔혹하게 멸망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시온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에돔의 보스라를 들어 마지막 심판 때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채움입니다. 이 채움은 오직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선민들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생겨납니다.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선민이 인간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방

인과 고자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배고픈 자 누구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 예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모순입니다. 불량인간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폐기처분 하시려는데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허락하신 것이 시온이었고, 시온을 통해서 선민들은 폐기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온에는 성전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번제단에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죽이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에돔의 보스라 같이 하나님 이외의 세상으로 마음을 채워 기뻐하려는 인간들은 불량품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이 세상의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을 담음으로써 고깃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육시켜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불량이 되어버린 죄를 전가시키는 번제를 준비하셨습니다. 번제는 어린 양의 각을 떠서 죽이고 태우는 잔혹한 과정입니다. 불량품이 되어서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내가 흘릴 피를 양이 대신 흘리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폐기처분당해야 마땅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번제는 하나님의 자기모순을 극복하시기 위해 만드신 장치입니다.

이 번제는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예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번제의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량품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죽은 것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폐기처분을 벗어나는 자격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시온과 에돔을 대립시킨 이유입니다.

인생을 살며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사업하다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살하기도 하는데 그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업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했을 때에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도륙당해서 끝이 나야 마땅한 폐기처분 대상인 불량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폐기처분 되어야 마땅한 불량인간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재벌이나 노숙자나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이 불량품의 폐기처분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아 살갗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선혈이 낭자하고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폐기처분 대상인 불량품 나를 죽이시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자기모순의 극복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원칙으로는 불량품인 나는 폐기처분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죽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모순을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극복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불량품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잔인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모순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도륙시키는 것처럼 폐기처분 당해야 할 불량인간들을 애꿎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은 역설적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반어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무엇을 마음에 담겠다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음으로써 생산되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세상을 마음에 담는 것이 죄입니다.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한 사람만이 참된 의미에서의 인간입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면서 사는 본래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적 기질로 인해 세상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은 인간이 폐기처분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저렇게 폐기처분 되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자녀를 마음에 담고 고민하는 나는 폐기처분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담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는 폐기처분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자녀도 길러야 합니다. 이 불량품으로 폐기처분 당해야 마땅한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청와대에서 나라를 다스리든지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기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되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량인간 나는 폐기처분 되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자기모순에 빠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폐기처분 되어야 할 나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한 자로써 어디를 가든지 광부가 아닌 하늘 정원을 가꾸는 자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